

“에베소의 오순절 사건”

사도행전 19:1-7

사도 바울은 세번째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갈라디아와 브르기아땅을 거쳐 에베소로 돌아오는 일정인데, 이 에베소에서 그는 중요한 사람을 만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학문과 성경지식에 능한 사람이었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의 연수도 오래 되고,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성경도 잘 알 뿐더러 가르치는 자리에서 리더쉽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에 대해 무지하기에 그 사역 가운데 아무런 열매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성령의 침례에 대해 가르치게 됩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행 18:26)

이후 아볼로는 성령에 대해 깨닫고 “바울은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말할 정도로 열매 맺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열두 사람쯤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행 19:1-2)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며 정곡을 찌르는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던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단순히 신앙생활의 수준에 그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침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지니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성령’을 빼면 더 이상 기독교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성령의 능력을 제외시킨다면, 기독교는 하나의 이론적인 종교에 불과할 것입니다.

1. 성령이 누구신가?

그렇다면, 성령님은 과연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그 삼위일체 가운데 한 위격에 해당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삼위일체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 전면에 나오셔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는 구약의 예언대로 성자 예수님께서 전면에 등장하여 여러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승천 사건 이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게 됨을 통해 성령이 전면에 등장하는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을 알 수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 14:26)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 16:7-8)

그 때문에 성령님을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에는 삼위일체 중에 성령께서 전면에 등장하여 일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실 성령을 경험하기 전, 제자들은 무기력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3년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눈 앞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자,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모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매우 무기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기사와 이적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수천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가 탄생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반드시 성령님을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곧 하나님이신데, 육체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믿고 그 분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① 신분의 변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 1:12)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② 위치의 변화
“그러므로 네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 4:7)
‘종’의 위치에서 ‘아들’의 위치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③ 본질적 변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엡 2:3-5)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④ 법적 지위의 변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롬 8:15)
우리는 ‘종의 영’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양자의 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에 이를 때 얻어지는 변화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 받았다고 해서 다 능력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 180 도로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기도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함에도 그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며, 자신이 누리는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봉사와 섬김에도 불평이 없고 모든 것에 감사가 넘칩니다.

바울이 안수했을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에베소에도 임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 쯤 되니라” (행 19:6-7)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그 비어진 내면의 그릇에 악한 영들이 틈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사탄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언제라도 우리 마음의 방에 침입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통치하고 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예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 성령으로 충만하여 도저히 악한 사탄이 틈탈 공간을 내어 주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시간

1.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우리를 향해,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혹시 ‘성령충만함’을 경험해 보신 분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 분을 마음 속에 ‘영접’ 했습니까?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하며 신앙의 근본이 되는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나’의 정직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3. 오늘 나눔을 통해 내가 깨달은 것, 혹은 새롭게 다짐하거나 결단한 것들이 있다면 편안하게 나누어 봅시다.